

건협소식

한국건강관리협회, 2005년도 대의원총회 개최



합심하여 협회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전 국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생 건강관리 시스템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11월 29일(화), 서교호텔 별관 크리스탈룸에서 2005년도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2006년 총 예산규모를 650억 원으로 확정하는 등 예산 및 사업 계획을 비롯한 부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이순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우리 협회가 지난해 창립 40주년을 기계로 다짐한 바와 같이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첫 해로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한 결과, 모든 사업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에도 전 직원이

라오스에 기초보건협력사업 전문가 파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한국 국제협력단과 함께 NGO 사업으로 실시하는 한·라오스 기초보건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도 11월 15 일~21일까지 이순형 회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팀을 라오스에 파견하였다.

방문기간 동안, 전문가 팀은 라오스 보건부를 방문하여 2000~2005년까지 실시한 한·라오스 기생충퇴치사업을 마무리 짓는 최종 평가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라오스 보건부는 한·라오스 협력사업을 통해 라오스 기생충 퇴치 및 건강증진 분야에 큰 기여를 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전문가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기념식을 마련하여 그 간의 공로를 치하하였다.

강원지부, 추계 체련 대회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지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에 걸쳐 직원 추계 체련대회를 실시하였다.

철원 한탄강 레저단지에서 실시한 이번 체련대회에서는 한탄강 래프팅, 산악 오토바이 타기, 서바이벌 게임 등을 체험하며 직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에 구급의약품 및 구충약품 등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11월 9일 오전 인천항에 서 이순형 회장과 김성일 사무총장 등 협회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어린이 건강증진과 기생



총퇴치를 위해 지원할 구급의약품 및 구충약품과 검사기자재 등에 대한 선적식을 갖고, 2명의 인도요원을 2차 방북대표단으로 북한에 파견하였다.

북측에 지원되는 물품은 구급의약품 및 구급함 키트 100개, 구충약품 100만 명분, 현미경 등 검사기자재 등으로, 남북 협력기금과 협회 예산 및 한국제약협회와 신동제약·일동제약·영진약품 등의 협조를 얻어 총 71만불(7억 5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번에 지원하는 물품은 남포에서 북측에 인계된 후 구급의약품 및 구급함 키트는 북한 어린이 시설에, 구충약품은 조선의학협회, 검사기자재는 평양 제2인민병원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울산지부, 전국체전 겸진체험관 운영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는 지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제86회 전국체전에 참여하여 무료검진체험관을 운영하였다. 울산지부는 전국체전 참가선수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CO측정, 체성분 검사, 건강생활실천 상담 등을 실시하고 건강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다. ◎